

Truth shall make you free John 8:32

Day 4. 구원의 의미

간음한 여인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간음한 여인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체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에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간음한 여인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탕자의 비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 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누가복음 15:11-24

탕자의 비유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 가는도다!’

탕자의 비유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누가복음 15:11-24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마리아 여인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시므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육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으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길으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 때가
오리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Spirit)과 **진리(Truth)**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구원은 선물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구원은 선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18-19

평화
(이사야 53:5)

자유
(로마서 6:6-7)
(히브리서 2:15)

거듭남
(요한복음 3:5)

영생
(로마서 6:22)

죄사함

성령의 선물
(사도행전 2:38-39)

의롭다
(로마서 3:24)

구원
(마태복음 1:21)
(누가복음 1:77)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14-1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has),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is passed).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 자식

세상과 정죄

백보좌 심판

영원한 불



하나님 자식

징계

그리스도의 심판

칭찬과 책망

정죄와 징계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1:27,30-32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심판의 두려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17-18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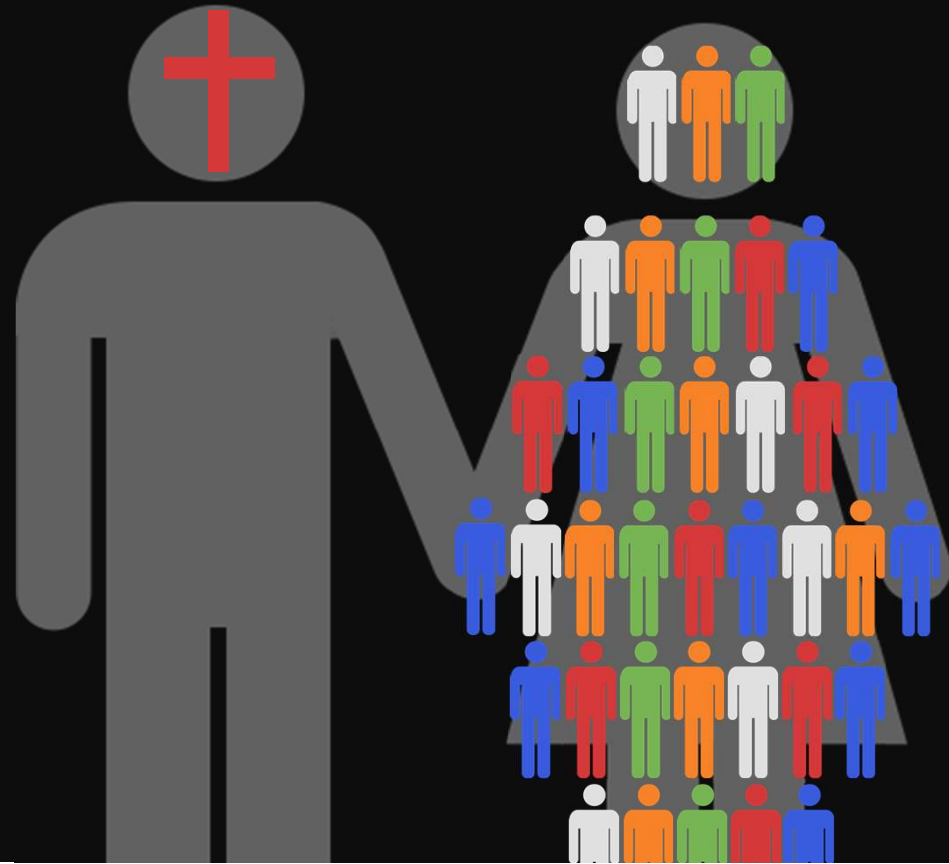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 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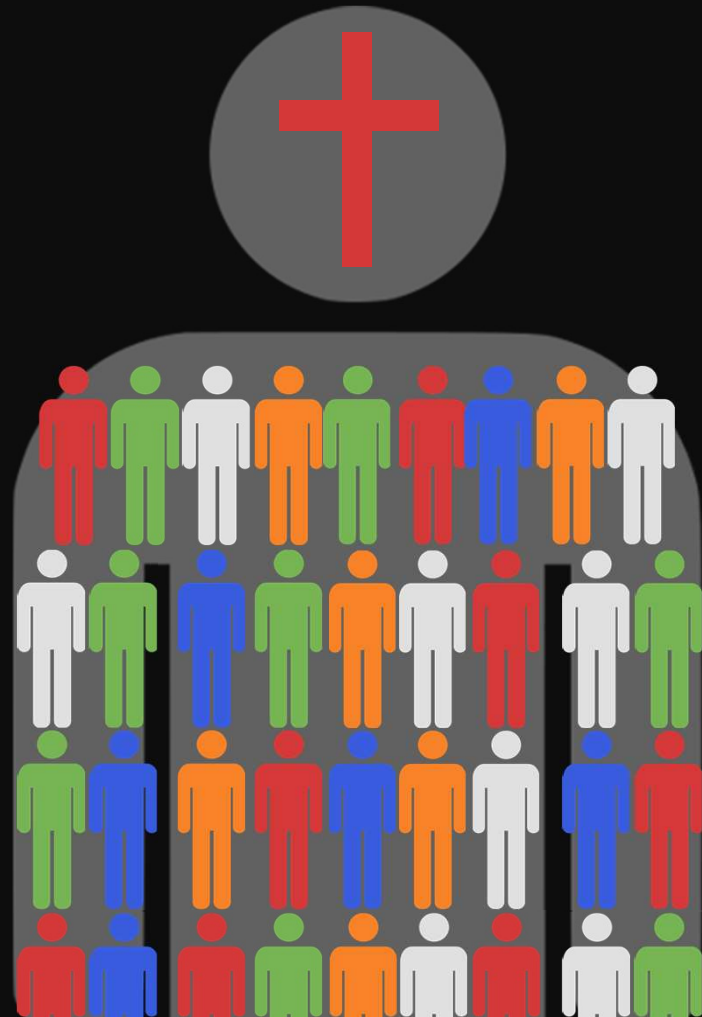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됴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됴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Mystery)라.

에베소서 5:23, 30-32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주 앞에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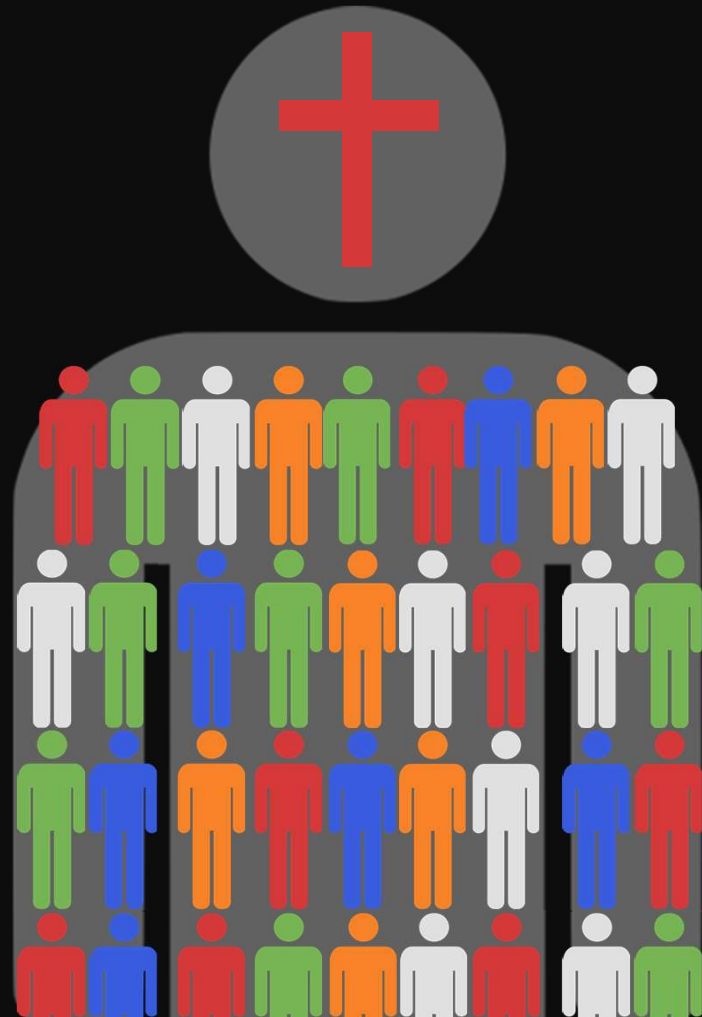
사무엘하 5:3



그리스도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의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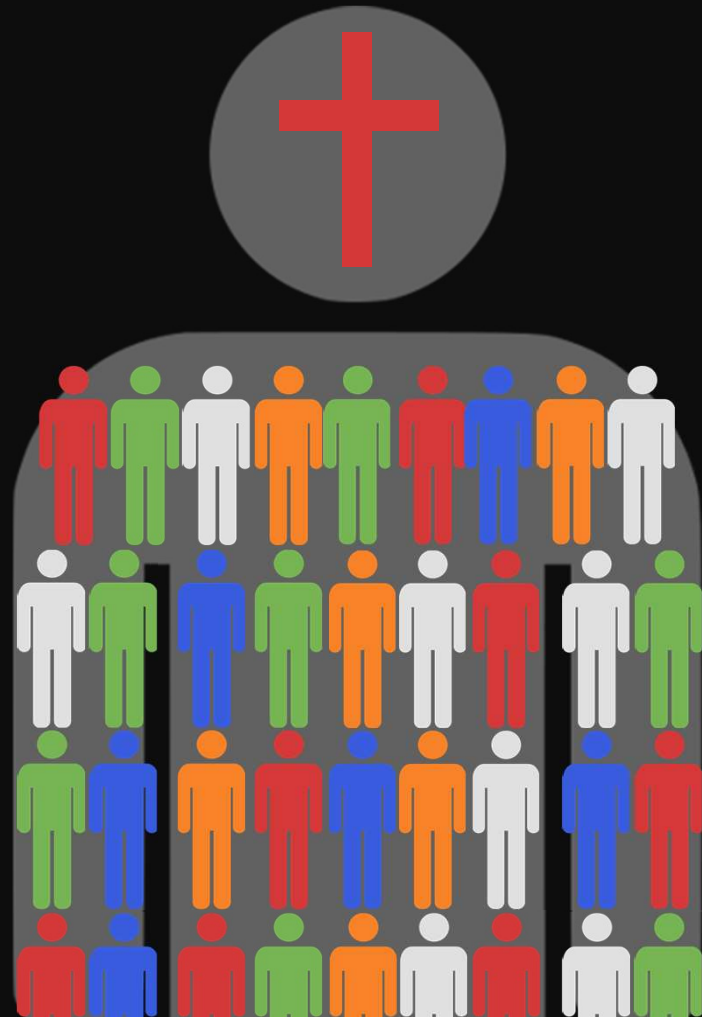
시편 133:1-2



그리스도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고린도후서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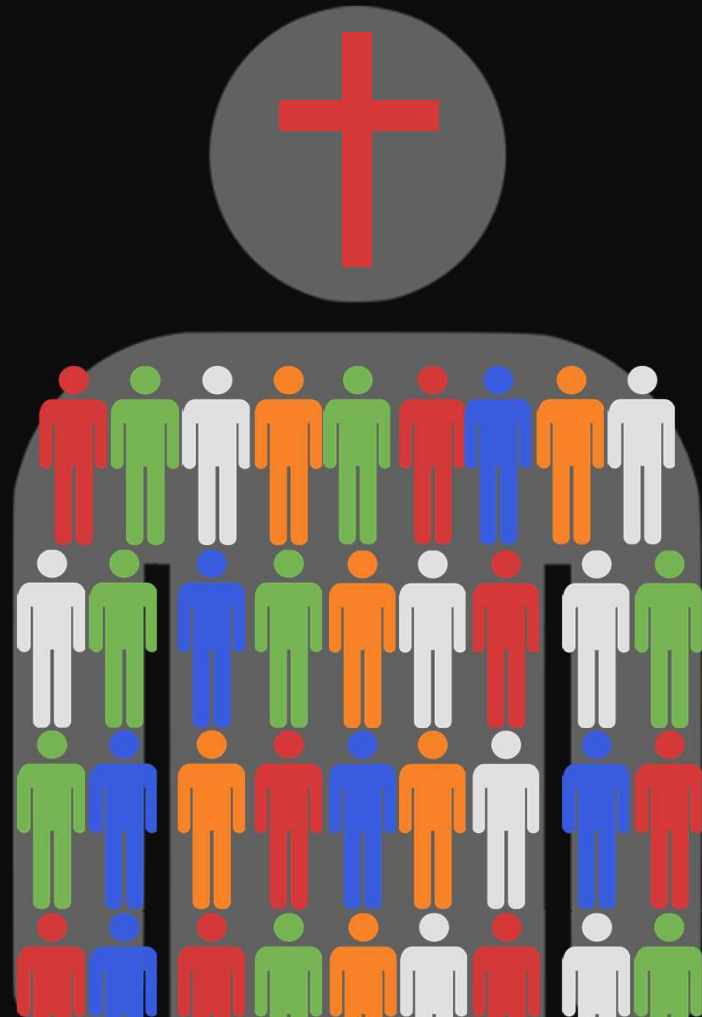


그리스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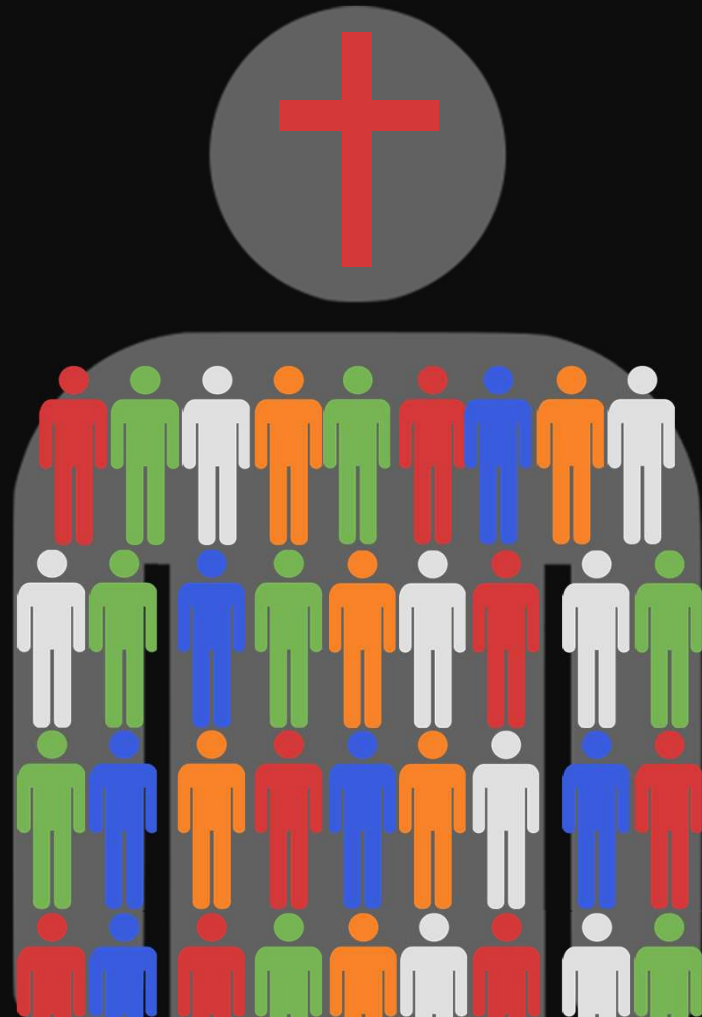
고린도전서 12:12



그리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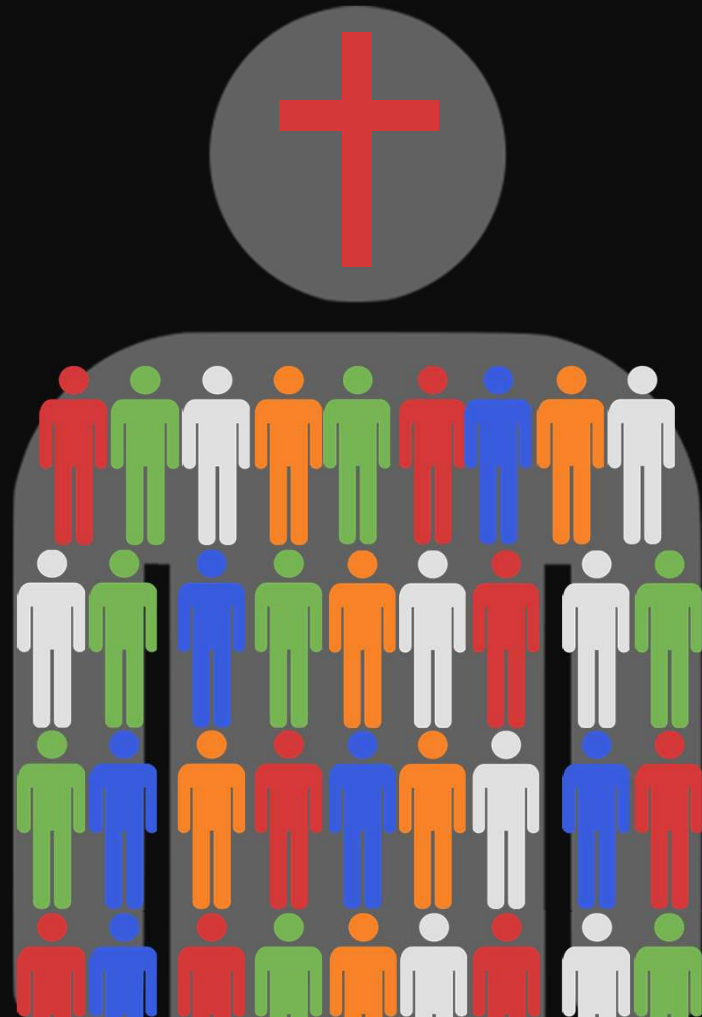
고린도전서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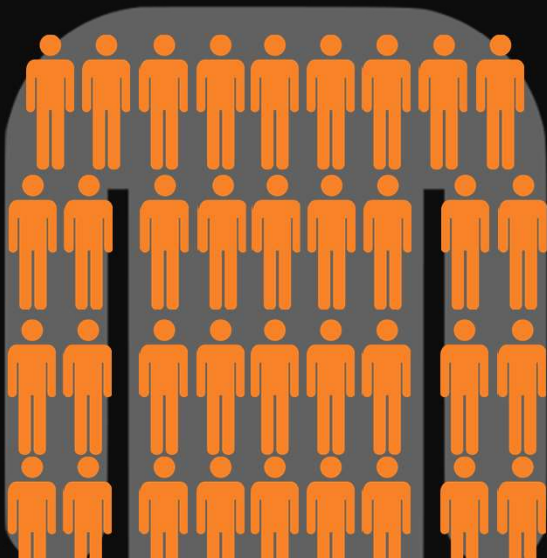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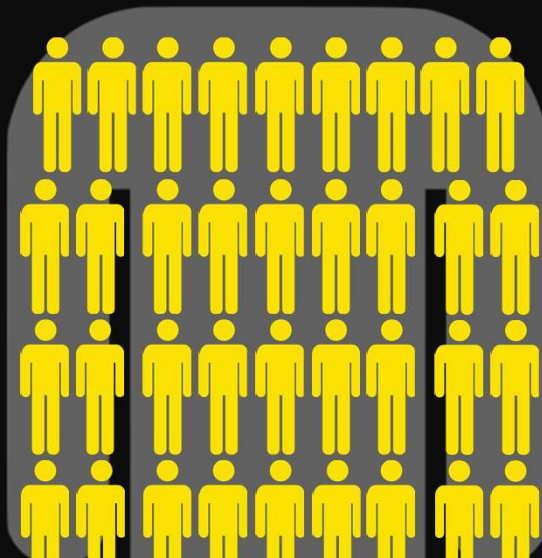
로마서 6: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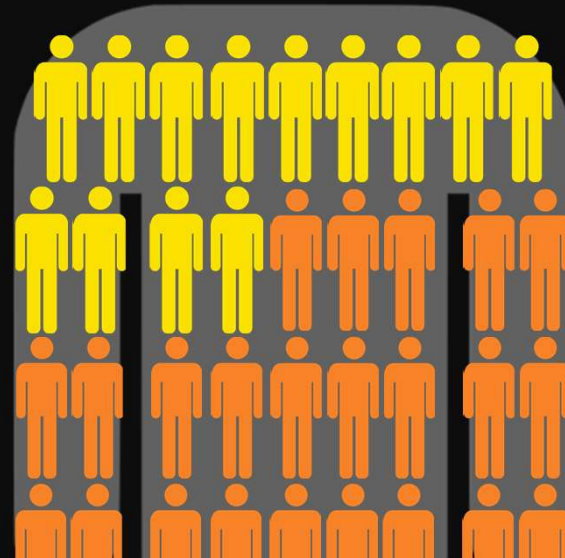
아담/사람



야곱/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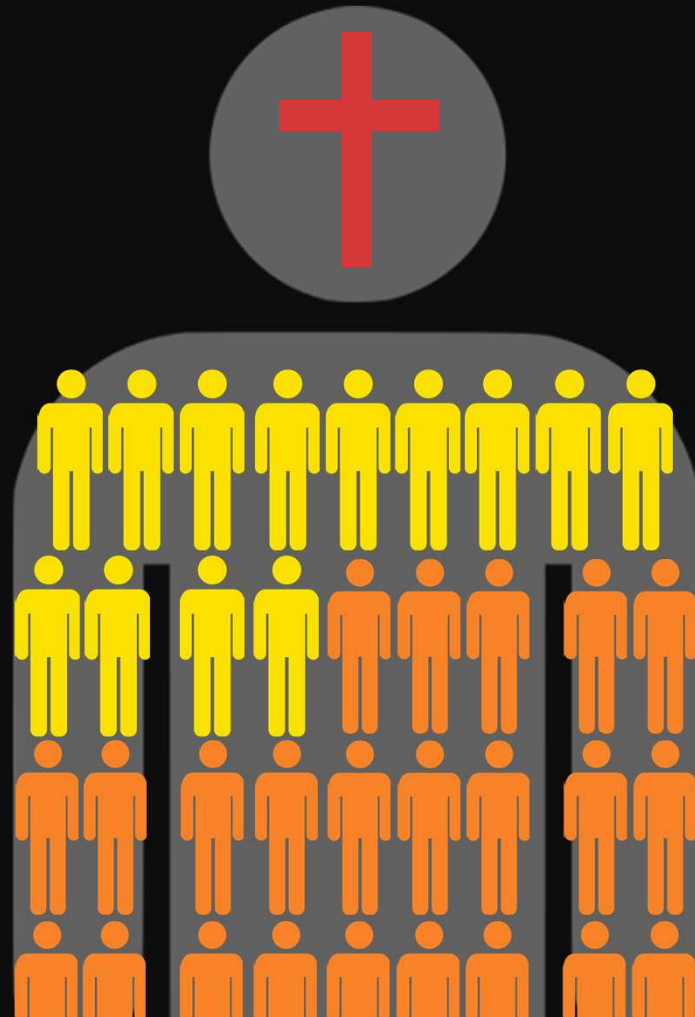


예수/그리스도



그리스도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을 자기(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one new man**)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2:1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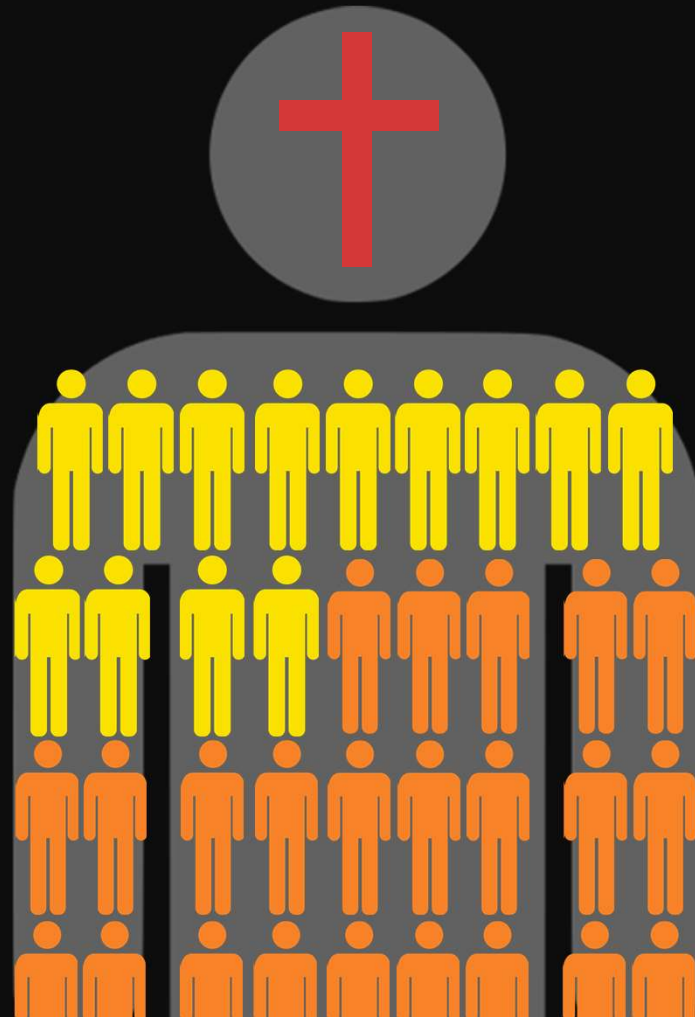
그리스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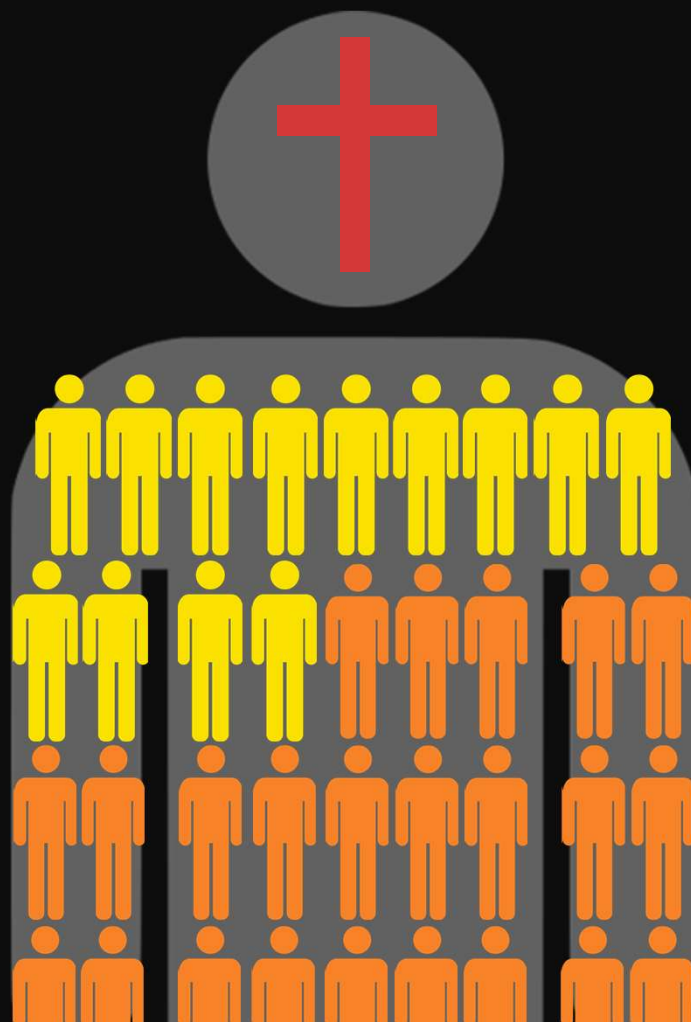
사도행전 9:4,5



그리스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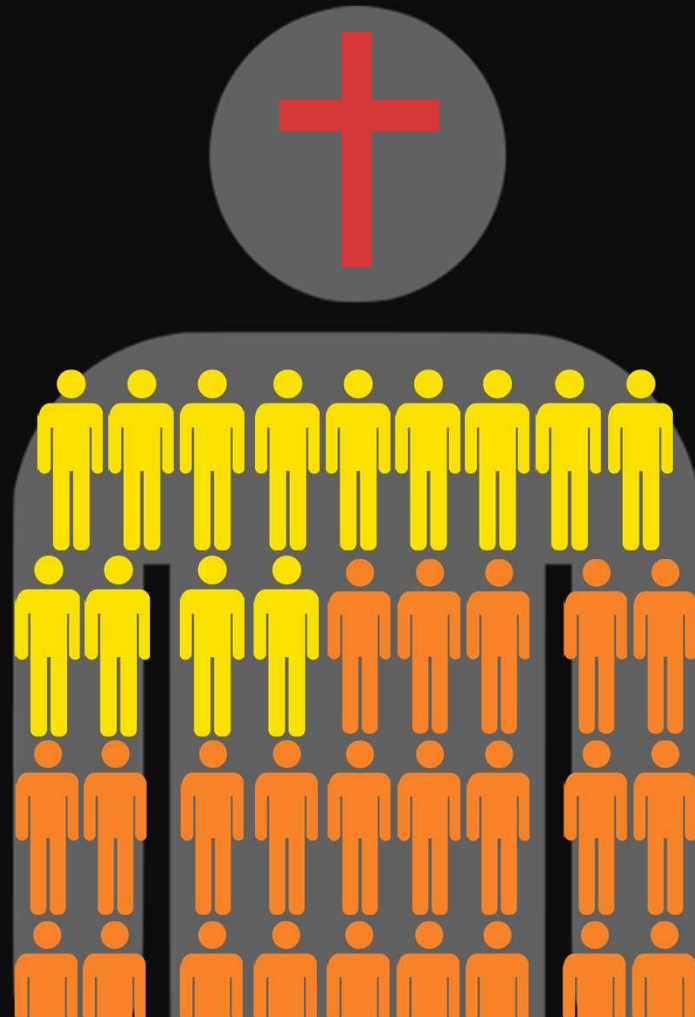
로마서 12:5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로마서 8:1,2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 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니
그 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